

## 어느 한국계 멕시코인의 ‘우리나라’ — 《이스토리아》(Historia de Historia) 다큐멘터리 제작을 마치며

김하경

언제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나라 사람 직원이 말하기를 여기 유카탄 출신 선수가 세계복싱챔피언에서 한국 선수와 겨룬다고 하더군요. “누가 이기나 돈 내기할건데 누구를 응원하겠습니까?” 이 당시에 제가 30대였을 겁니다. “아니요, 난 내기에 참여하지 않겠어요.” “에이, 그러지 말고 내기합시다.” “좋아요. 나는 내 동포(paisano)를 응원하겠어요.” “20페소 거는 겁니다.” “그래요, 20페소.” 경기일이 되어 여기 출신 선수가 이겼습니다. 한국 선수가 진 거죠.<sup>1)</sup> 직원이 다시 내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돈 내세요.” “내가 왜 돈을 내야하지요?” “동포에게 돈을 거셨잖습니까?” “그렇지요. 동포에게 걸었고, 유카탄 출신이 이겼고, 나는 유카탄 사람이 아닙니까.” (웃음) 한국인이 이겼다면 그가 내 동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 올리세스 박 리 인터뷰에서

2011년 1월, 멕시코 한인 이민사 연구를 위한 문헌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 유카탄 주에 있는 메리다 시를 방문했다. 당시 연구의 목표는 20세기 초 혁명으로 치달던 멕시코라는 역사적 맥락 안에서 한인 이민의 사회

1) 70년대와 80년대에 한국 선수와 겨룬 유카탄 출신 선수는 미겔 칸토가 유일하다. 따라서 올리세스가 언급한 경기는 미겔 칸토와 박찬희 선수가 대결한 1979년 세계복싱챔피언십 경기로 추정된다. 실제로는 1차전에서 박찬희 선수가 승리하고 재경기에서는 무승부로 끝났다.

경제적 의의를 재조명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1,033명의 한인이 멕시코로 건너왔던 시점인 1905년을 전후로 멕시코, 한국, 일본 사이에 오갔던 외교 문서와 당시 한인 노동자를 묘사한 유카탄 신문 기사의 분석이 중요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사실은 앞서 언급한 기록이 이민의 실행 계획 및 이주의 과정에 대한 정보는 담고 있으나 정착 멕시코 도착 후의 정착 과정에 대해서는 서술된 바가 적다는 사실이었다. 게다가 관련 문서의 양조차 적은 관계로 한인 이민자가 멕시코에 정착하는 과정이 어땠는지 구체적인 증거로 뒷받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대신 그 과정의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것은 상당부분 미시적인 개인사와 집단 기억, 즉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문서자료는 한국계 멕시코인(mexi-coreano)의 관점에서 한인의 정착 과정을 기술한 호세 산체스 박(José Sánchez Pac)의 책 『회상: 유카탄 반도에서의 한인의 삶과 노동』(Memoria de la vida y obra de los Coreanos en México)이 유일하다.

2014년 3월. 그리하여 필자는 멕시코 한인 이민사에 대한 불완전한 기록을 대체할 기억을 채집하기 위해, 그리고 호세 산체스 박의 책으로 대변되는 '이야기'의 생명력을 확인하기 위해 메리다를 다시 방문했다. 이번에는 카메라를 들고. 그렇게 두 주 동안 한인 1세대가 일했으리라 추정되는 아시엔다 다섯 곳과 멕시코 한인 이민사 박물관(Museo conmemorativo de la historia de la inmigración coreana a Yucatán)에서 열리는 행사와 한글학교 수업을 카메라에 담고, 총 네 개의 촬영 인터뷰와 세 개의 비공식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채집한 이야기는 《이스토리야》(Historia de Historia)라는 실험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으며, 현재 후반 작업이 진행 중인 상태다. 단순히 정보 전달을 위한 시각적 매체가 아닌 문화인류학, 퍼포먼스, 그리고 영화의 교차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사유의 실천으로서 다큐멘터리. 그런 다큐멘터리에도 불가피한 형식적 한계가 있었으니 바로 방대한 양의 취재 결과 중 극히 일부만을 선별해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취재 내내 필자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으나 다큐멘터리에는 많이 반영되지 않았던 한국계 멕시코인의 문화적 정체성이 수행되는 방식에 대한 단상을 이 글을 통해 나누고자 한다.



인터뷰 후 주방 제품을 생산하는 본인의 공장을 소개하는 울리세스 박 김

### 어느 한국계 멕시코인 하나 — 언어 혼용의 단상

울리세스 박 리(Ulises Park Lee)는 메리다 한인회의 14년차 회장이다. 그 지역 사람으로서는 흔치않게 양 부모가 모두 한국 사람인 한국계 멕시코인 3세이다. 그는 여타 이민자 후손과 마찬가지로 한국어를 구사할 줄 모르지만, 여전히 건재하신 아버지 크레센시오 박(Cresencio Park)의<sup>2)</sup> 영향 때문인지 일상 대화에서 몇몇 한글 단어를 심심치 않게 사용한다. 예컨대 그는 아직도 유카탄 사람(yucateco)과 ‘이 나라 사람’(inarasaram) 그리고 한국계 멕시코인(mexicoreano)과 ‘우리나라 사람’(urinarasaram)이라는 표현을 혼용한다.<sup>3)</sup> 이는 멕시코 땅에 발을 디딘 첫 한인이 멕시코 사회에 인종적으로 동화되기 이전부터 사용했던 표현들로, 현지인 타자(other)와 이방인 자기(self)의 경계를 명확히 한다. 여기 ‘이 나라’는 물리적으로는 가까울지

2) 2014년 3월 인터뷰에 응한 크레센시오 박은 11월 1일 향년 9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비록 이 글에는 인용하지 않았지만 이민 초기 한인의 생활상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준 크레센시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

3) 물론 이런 표현은 한국과는 전혀 연이 없는 스페인어 사용자와 대화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한국어를 알아들으리라고 추정하는 사람이나 한국계 멕시코인과의 대화에서만 사용한다.

모르나 ‘나’와 다른 ‘남’의 나라이며, 저기 ‘우리나라’는 아무리 멀고멀어도 ‘나’가 속한 ‘우리’의 나라였던 것이다. 그런데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며 평생을 메리다에서 살아온 올리세스에게 ‘이 나라’는 자신과 어떤 관계에 있으며 ‘우리’는 정확히 누구인 것일까?

나는 멕시코 사람이 맞지만 ‘이 나라 사람’은 아닙니다. 멕시코 사람도, 당신도 나의 동포(paisano)이지만 나는 ‘이 나라 사람’이 아닌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올리세스의 말대로라면 멕시코 사람이면서 한국 사람이기도 한 경계인 올리세스가 생각하는 ‘우리나라’는 더 이상 대한제국 또는 대한민국이라는 지리적 장소가 아니다. ‘동포’라는 단어와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민족적·국가적 차원에서의 소속감을 나타내는 표현 또한 아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1세대가 스스로를 유카탄 현지인과 차별화하여 호명할 때 사용했던 표현이다. 후손들은 그런 표현에서 개별 단어의 의미를 모르거나 그것이 사용된 맥락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인물과 동일시하는 차원에서 선대가 사용하던 표현을 그대로 차용해왔던 것이다. 대부분이 한국 땅을 밟아보지 않은 한국계 멕시코인에게 ‘우리나라’는 선대의 존재와 그에 대한 기억을 통해 간접적으로 구성된 상상의 대상이다. 시간이 지나며 기원이 되는 의미를 습관적인 발화 행위로 덧쓰게 되면서 그 의미가 모호해진, 다층적인 양피지(palimpsest)와도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 현재 그들에게 ‘우리나라’의 의미는 선대의 ‘우리나라’와 조금은 다른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이 나라’라는 표현의 의미 역시 모호해졌다. 메리다의 한국계 멕시코인은 멕시코 한인 이민 100주년을 맞이할 즈음부터 한국 언론은 물론이고 멕시코 언론에서도 다루는 주제가 되었는데, 그 중 카날 온세(Canal 11) 방송국에서 방영한 〈멕시코로 온 사람들 — 한국편〉(Los que llegaron — coreanos)에서 올리세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우리는 한인 후손이기는 하지만 한국인보다는 멕시코인처럼 느껴집니다.” 본인은 ‘이 나라 사람’이 아닌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보다는 멕시코 사람이라는 올리세스. 언뜻 들으면 그의 말에는 모순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나라’라는 표현은 단지 선대의 문화적 차별화 전략으로서의 의의만을 유지하고 있을 뿐, 더 이상 ‘남’의 나라는 아니며 ‘나’의 나라이기도 하다. 이렇게 올리세스는 유카탄반도 사람(yucateco), 멕시코 사람(mexicano), 한국 사람(coreano), 한국계 멕시코 사람(mexicoreano), ‘이 나라 사람’, ‘우리나라 사람’과 같은 스페인어 단어와 한글 표현을 혼용하며, 이런 표현이 액면으로 지시하는 문화의 경계를 자유롭게 횡단하는 것이다.

### 어느 한국계 멕시코인 둘 — 혼종(hybridity)의 단상

메리다에 위치한 멕시코 한인 이민사 박물관의 관장인 제니 장 송(Genny Chans Song)은<sup>4)</sup> 알바로 오브레곤 장군의 이발을 맡았던 타르시시오 창(Tarcisio Chans)의 손녀로서, 올리세스와 함께 메리다의 한인 사회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국계 3세이다. 그녀는 이민사의 근간이 되는 기록 및 기억의 문지기이자 큐레이터답게 그 누구보다도 이민 1세대의 정착 과정에 대해 박식하며,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다. 산모에게 미역국을 주는 이유부터 돌잔치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한국 전통’에 대해 아는 바를 한글 단어를 섞어가며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녀가 메리다 한인사회에 특별한 또 다른 이유는 부모와 조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가 부자가 될지, 가난뱅이가 될지 알 수 있다고 알려주신 할아버지, 또 신발을 가지런히 놓지 않으면 복이 날아간다고 나무란 할머니를 기억하는 제니. 그런 그녀에게 두 분이 들려주신 ‘우리나라’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그녀는 밤에는 늑대로 변모하여 정글에서 동물을 잡아먹는 아름다운 여인(아마도 구미호)의 전설을 이야기하는 듯하더니 금세 말을 얼버무렸다.

4) 스페인어 발음을 따라 ‘헤니 창 송’이라고도 부른다.

모르겠어요. 아쉽게도 그때 난 너무 어렸어요. 내가 기억하는 모든 것은 마치 꿈만 같아요.

대신 제니는 ‘우리나라’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라며 ‘할머니, 이야기 하나 해주세요’(Cuéntame un cuento Jalmuni)라는 행사를 소개했다. 박물관에서 매달 마지막 일요일에 열리는 이 행사에서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한국계 2세 또는 3세 할머니가 한국의 전래동화를 들려준다고 한다. 그렇다면 할머니는 부모가 들려준 전래동화를 아직까지 기억하는 것일까? 그 이야기는 한국의 구미호가 멕시코 정글의 늑대 여인으로 바뀐 것처럼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느 정도 현지화되었을까? 예컨대 “해님과 달님”에서 어미가 호랑이에게 떡 대신 토르티야(tortilla)를 준다든지, 오누이는 나무에 참기름 대신에 치아(chía) 기름을 바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변형되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마야 신화에서처럼 해와 달은 오누이가 아닌 모자 관계이거나…. 이런 식으로 할머니가 기억하는 한인 1세대의 전래동화는 이질적인 ‘이 나라’ 문화와 ‘우리나라’ 문화의 혼합물인 혼종적(hybrid) 텍스트로 읽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현실은 필자의 가설과 다르다. 매달 선정된 할머니는 한국문화원에서 보내온 교재 속 전래동화 모음 중에 하나를 골라 외운다고 한다. 제니와는 달리 대부분의 한국계 2세대와 3세대는 실제로 1세대로부터 전래동화는커녕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 물려줄 이야기 또한 없기 때문이다.<sup>5)</sup> 애초에 타향(이제는 메리다의 한국계 멕시코인에게 물리적인 고향이 된 유카탄)의 것과 혼합될 만한 고향(이제는 타향이 된 한국)의 것이 부재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 조부모를 가진 제니조차도 기억이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근래에 한국인 선교사

5) 인터뷰 대상자들이 일관적으로 증언한 바는 ‘첫 세대’(los primeros)가 말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현지어를 구사하지 못한 탓도 있겠지만 고향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고된 삶을 살던 이민자에게는 사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제니 역시 타르시시오의 ‘한국에 대한 기억’보다는 당시 한인 사회의 경험과 무관한 ‘멕시코의 경험’을 주로 이야기했다. 이 글에서 인용하는 제니의 인터뷰는 필자가 제니에게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달라고 고집하여 얻어낸 부분으로, 그녀에게 ‘한국’이라는 핵심어로 곧 바로 추출할 수 있는 기억이 아닌 듯하다.



멕시코 한인 이민사 박물관에서 인터뷰하는 제니 장 송

들이 주고 간 한국의 전통과 예의범절에 대한 교재를 참고하여 박물관 방문객에게 한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게 제니와 여타 한국계 멕시코인은 소위 ‘한국적’이라고 일컫는 것을 다시 배움으로써 선대의 ‘우리나라’인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기억의 부재 그리고 증언의 부재를 대신한다. ‘할머니, 이야기 하나 해주세요’와 같은 문화행사를 통해 ‘우리나라’라는 상상의 대상이 능동적으로 구체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체득하지 못한 선대의 ‘우리나라’ 문화를 인위적으로나마 습득하는 데 기여한다. 여기서 습득 과정이나 습득물 자체가 인위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한국계 멕시코인이 행사에서 수행하는 ‘우리나라’ 문화는 선대의 ‘우리나라’인 20세기 초 대한제국의 문화상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래동화 구연 외에도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용 영상 및 영화 관람, 한국 음식 시식, 태권도 시범 및 케이팝(K-pop) 커버 공연 등이 진행되는 이 행사는 한국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용 자료나 젊은이들이 유튜브를 통해 접하는 한국의 대중문화에 기반을 둔다. 이렇게 메리다의 한국계 멕시코인들이 재학습하는 이 ‘한국성’은 그들만의 독자적인 혼종 문화에서 선대의 ‘한국성’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 어느 메히꼬레아노 셋 — 혼혈(mezcla)의 단상

아리랑을 들으면 눈시울이 붉어진다는 마르코 렌돈 로페스 소사(Marco Rendón López Sosa)는 가족사에서 증조할아버지가 유일하게 한인이었던 한국계 4세이다. 독일계로 멕시코 캄페체 주에서 태어난 부인 테레사와 결혼하여 슬하에 세 딸(세실, 레오노르, 발렌티나)을 둔 그는 가족과 함께 이민사 박물관을 매달 방문한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만들어준 잡채를 먹으며 증조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기에 자기에게 ‘한국인의 피’가 섞여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워낙에 다양한 인종과 지역 출신이 섞인 가족사 때문에 별다른 의미 부여하지는 않았다. 그러던 터에 소사 가족에게 한국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킨 사건이 일어났다. 2005년 인류학을 공부하는 세실이 유카탄에서 발행하는 문화유산 관련 학술지 《이나흐》에<sup>6)</sup> 실린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 논문을 읽다가 가족이름인 ‘소사’가 원래 한국식으로 ‘서’라는 성씨임을 알게 된 것이다. 그때부터 소사 가족은 멕시코 한인 이민사 박물관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현재 테레사는 한식 요리책을 구해 잡채 등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세실은 틈틈이 한인 이민사를 공부하고, 레오노르와 발렌티나는 친구들과 함께 케이팝 댄스 커버 그룹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마르코 역시 태극기 스티커를 자동차에 부착하고 다니며 한인회 구성원 그리고 메리다를 찾는 한국인과 활발한 네트워킹을 하고 있다.

마르코와 그의 딸들은 올리세스나 제니와는 달리 한국어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며 ‘우리나라’와 같은 한글 표현을 쓰지 않는다. 마르코에 의하면, 이는 증조할아버지 사무엘 서가 유독 말이 없었던 데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기까지 해서 당신 딸에게 한국 문화와 한국 이야기를 전해주지 못했고, 따라서 ‘한국성’의 부재가 대물림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는 올리세스와 제니 덕분에 한국을 다시 배우고 알아감으로써 그 부재를 채울 수 있었다며 감사해했다. 마르코와 그의 딸들은 ‘할머니, 이야기 하

6) 이 학술지(Inaj: revista de divulgación del patrimonio cultural de Yucatán)는 멕시코국립인류학·역사학연구소(INAH)의 유카탄 분소에서 발행하며, ‘이나흐’는 마야어로 ‘옥수수 씨앗’을 의미한다.





자택에서 인터뷰하는 소사 가족

나 해주세요'와 같은 문화 행사의 수혜자로서 '한국적'이라 일컫는 것의 재학습을 통해 선대에 대한 기억을 회복시키고 '우리나라 사람'의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나가는 한국계 멕시코인의 대표적인 예이다. 스스로를 '우리나라 사람'이라 부르지는 않지만 희미해진 한국의 흔적을 적극적으로 되짚어가고 있는 소사 가족. 그렇다면 그들은 스스로를 한국 사람이라 인식하고 있기는 할까?

우리는 우선 그 무엇보다도 유카탄 사람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카탄이 속하는 멕시코 사람이며, 그 다음으로는 나의 증조할아버지가 속했던 한국 사람이며, 할머니 한 분이 속했던 리비아 사람이며, 기타 가족 구성원이 속했던 스페인과 아일랜드의 흔적도 갖고 있습니다 [...]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어디로 갈지 아는 겁니다.

마르코는 멕시코를 멕시코답게 해주는 혼혈(mezcla)의 정신을 구현하는 자신의 가족이 자랑스러운 만큼 자신을 한국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증조할아버지의 존재에 감사한다고 했다. 얼굴 생김새에도, 성씨에도 한국인의 흔적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주변의 한인 후손들은 자신의 뿌리에 대한 관심조차 없으며 슬퍼하는 소사 가족에게 한국이건 리비아이건

스페인이건 그들의 기원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이다. 물론 지금 이 시점에서 소사 가족은 다른 혈통보다도 한국인 혈통을 강조하고 한국문화 위주로 취미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일은 여러 혈통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 결과라는 것은 명백하다. 직접적인 경험도 없고 전승되는 기억도 없기 때문에 수많은 경계가 이미 희미해진 상태에서 어쩌면 올리세스보다 자유롭게 더 많은 경계를 횡단하며 그때그때 특정 문화와 선택적으로 결연하는 것인지 모른다.

2014년 10월의 마지막 일요일에도 어김없이 ‘할머니, 이야기 하나 해주세요’ 행사가 열렸다. 한복 옷고름을 커다란 리본 모양으로 맨 할머니는 심청이 이야기를 구연했고, 소사 자매는 케이팝 음악에 맞춰 춤을 추었으며, 방문객들은 김치와 잡채를 시식했다. 한국계 멕시코인의 ‘우리나라’와 그들 나름의 ‘한국성’은 메리다의 한국계 멕시코인 사회 내에서 끊임없이 재생되며 순환하고 있는 것이다. 기록과 기억의 결핍을 바탕으로 쓴 멕시코 한인 이민사와 ‘우리나라’라는 상상의 대상을 인위적으로나마 구체화하는 노력으로 이루어진 한국계 멕시코인의 문화적 정체성은 앞으로 100년 후에는 또 어떻게 변할까?

---

김하경 - 연세대학교 방송영화과 석사